

이제 알았습네

NOW I FOUND!

허종원현대춤

2011.5.17. THU PM 8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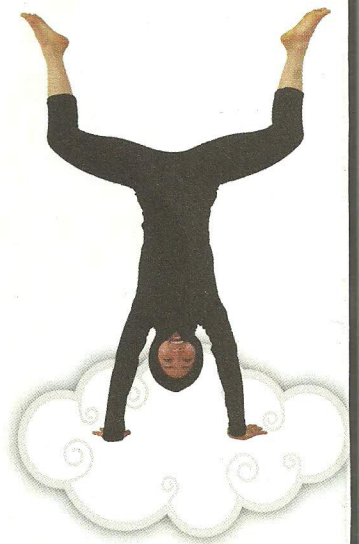
부산시민회관 소극장





Staff

연출 및 기획 / 김수현
조명디자인 / 신상현
첼리스트 / 김보경
무대감독 / 조희정
음향 / 김수연
의상 / 차점순(쉬는공간)
사진 / 남희림, 남헌찬
비디오 / 이주영
디자인 / 이천일(캘리그래픽작가)
**진행 / 김초슬, 김동석, 이혜수,
김유하, 한상희**
홍보 / 김은애



Profile



허종원



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
현대무용단 '자유' 정단원
BeTheSDa2010 공동대표

주요안무작)
반쪽이, Kairos, 소리굽쇠, Be selected,
Secret in A to Ω, Guest house

김수현



이용진



이연주



박근영



안선희



조현배



이제 알았습니다

■ 주제 | NOW I FOUND!

만약 누군가가 내게 “당신은 누구입니까?” 라고 묻는다면,
 나는 “**닐 앤더슨입니다**”라고 대답할 수 있다.
 “아니오, 그것은 당신 이름입니다. 당신은 누구입니까?”
 “아, 나는 **신학교 교수입니다**.”
 “아니오, 그것은 당신 직업입니다.”
 “나는 **미국 사람입니다**.”
 “그것은 당신의 국적입니다.”
 “나는 **침례교인입니다**.”
 “그것은 당신의 교파입니다.”
 나는 키가 **173센티미터**이고,
 몸무게는 **약 68킬로그램**이라고 대답 할 수도 있다.

[닐 앤더슨 - 「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」 中]

난 누구인가?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?
 사람은 한번은 죽는다. 그 후에는 내 속에 뭐가 있었으며,
 내안에 있었던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며,
 그 끝은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. 다만 **촉촉되고 이야기되어질 뿐이다**.
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많은 일들 중 하나가 **진실**이라면
 그렇다면 어는 것일지 나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**촉촉하여 본다**.

■ 내 용 | NOW I FOUND!

붉은 하늘 살을 저미고 고통이 탄생하는 **활의 움직임** 속에 죄가 싹트고 땅거미가 모습을 드러낸다.
 이내 어두움은 땅거미를 집어 삼키고 고통은 **욕망**을 잉태하여 **어두움**을 낳는다.
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반복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...

앞을 보지 못하는 **흙속** 애벌레의 모습처럼 구부러지고 일그러진 **어둠속** **자화상!**
 흙을 걷어내고 크게 한숨 쉬며 처음 맞이한 **빛** 속으로 몸을 맡긴다.
 아직 어색한 빛 속에서 주름을 펴 **활짝 웃어본 얼굴**이 다물어지지 않는다.
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. 살이 찢어지는 고통,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은 마치 흙속 어둠과 같다.
 짝 막힌 흙속과 다를 것 없이 어디로 갈지 어딘지도 모른 채 **빛으로만 나아 갈뿐!**

■ 출연자 | NOW I FOUND!

무용수 - 안선희, 김수현, 박근영, 이용진, 조현배, 이연주, 허종원

